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성경: 잠언
4장1-12절

- 1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 2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 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 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 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 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찌니라
- 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 9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 10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 11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침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 12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잠4:1-12)
- 13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3:12)
-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

느니라 (잠15:20)

1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10:1)

1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아들들아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4:1)

8 내 아들아 네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 1:8)

<말씀에 대한 해설;심장의 기억-치매에 걸려도 끄떡 없다.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

아버이 주일.

예전에는 어머니의 날이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피해자요, 희생자요, 약자요, 십자가를 지는 자였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어머니의 날을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아버지들이 문제의 중심이었던 가정들이 많았다.(요즘도 여전) 가부장제도가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부정적인 아버지의 역할만 부각되었고,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요즘들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역할이 덜 소중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왜곡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렇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만, DNA는 세포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

음속에 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의 경우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시기에서부터 아버지의 교훈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어머니의 범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역할은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다.(아마 밧세바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겨지게 되었다.)

왜 아버지의 교훈일까? 그것은 어머니가 교훈하는 것 보다, 아버지가 교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교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버지는 교훈하는 것이 어렵고, 형편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럴때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아예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라는 호칭까지 사용한다.

그 교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에게서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책임소재가 없는 교훈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중요도는 반반이다. 즉, 교훈의 내용과 그 의미의 가치와 동일하게 교훈하는 인격체로서의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때 비로서 살아있는 DNA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로.)

교훈에 있어서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뜻은 교훈을 하는 존재로서의 중요성이지만, 그 교훈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는 어머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까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은 어머니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끈끈한 정으로 아이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잘 들어야 한다고 챙겨주고,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수시로 그 교훈을 상기시키고 그 교훈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이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게 된다. 사람이라면 잉태되는 순간 DNA가 모두 전달되지 않는다.(단지 생물학적인 DNA만 전달될 뿐이다.)

사람이라면 그는 생물학적인 것 외에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DNA를 물려받아야 한다. 왜냐면 사람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진보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시 재 조정하고 새로운 논리를 세워서 새롭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DNA만 물려 준다고 전부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훈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교육의 주체를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성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이 있는 자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보나 집사의 예)

교회도 큰 가정이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을 돌보며,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